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⑱ 동산법문(東山法門)의 성립, 홍인(弘忍)

▶ 한줄 요약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창립자인 도신의 동산법문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제자가 바로 홍인(弘忍)이다.



중국禪의 센세이션 '동산법문' 알리다

수·당(隋·唐) 교체기에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창립자인 도신(道信)은 황매(黃梅)의 쌍봉산(雙峰山)에 선림(禪林)을 창립하였다. 이는 당시에 형성된 참다운 수행자는 마땅히 깊은 산에 머물며 은둔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은둔잠수(隱遁潛修)'의 전통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전란으로 인하여 도적들이 창궐하여 사찰까지도 약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큰 사찰이 없었던 쌍봉산에 은둔하였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속고승전〉의 전기에 "내가 입산한 30여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도를 배우려는 자가 멀다고 오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기술하듯이 도신의 도량에는 대중이 500여 명, 혹은 700여 명의 승려가 운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도신은 기존의 불교에 없었던 새로운 작법(作法)을 창안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대중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방법이었다. 본래 불교에서는 승려들의 노동을 계율로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는 신도들의 재시(財施)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쌍봉산의 도량은 지역적인 문제로 5백, 혹은 7백에 달하는 대중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보시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겠다. 다른 측면으로 이러한 대중들의 노동은 신도들의 재시에 의지하지 않고 대자유를 얻고자 하는 도신의 사상에 따른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신은 이와 같은 대중들의 근기를 네 부류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이 역시 중국선에 있어서 최초로 출현한 대중교육이라 하겠다. 한편 대중들이 운집하여 낮에는 노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수선(修禪)하는 생활로부터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게 되어 다양한 규구(規矩)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쌍봉산 도량의 규범들이 점차 발전되어 후대에 백장(百丈)에 이르러서는 이를 이른바 '백장청규(百丈淸規)'로 정리됐다.

이와 같은 도신의 도량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제자가 바로 홍인(弘忍, 602~675 혹은 601~674)이다. 도신의 제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도신을 적전(嫡傳)한 이는 오직 홍인만이 언급된다. 특히 도신의 도량에 대중들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홍인이 동산(東山)에 새롭게 사찰을 창건하였기 때문에 '동산법문'이라는 명칭이 발생하였던 것으로부터 보자면, 홍인은 도신의 선법을 더욱 널리 알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후대에 '동산법문'은 도신-홍인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홍인의 생애와 그 사상, 그리고 동산법문의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신의 선을 계승한 홍인 선사가 동산법문을 설한 오조사 전경.

홍인의 전기는 〈전법보기(傳法寶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등으로부터 〈송고승전〉, 〈조당집〉, 〈경덕전등록〉 등 거의 모든 승전에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선종의 출현에 절대적인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수많은 전설 등이 부가되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홍인의 입적 후 40여 년 후에 편집된 〈전법보기〉와 〈능가사자기〉를 통하여 그의 생애를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홍인은 속성이 주(周)씨이고, 황매현(黃梅縣) 출신이다. 홍인의 출가에 대해서는 7세, 혹은 12세, 13세 등 전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려서부터 도신을 사사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신이 여산(廬山) 대림사(大林寺)에 주석했을 때부터이니, 도신이 황매의 쌍봉산에 도량을 창립한 일(624)은 홍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하겠다.

〈전법보기〉에 실린 홍인의 전기에는 "성품은 말이 적고 침착하였으며, 도반들이 놀려도 상대하지 않았고, 평소에 노동에 힘쓰며 몸을 낮추어 남에게 양보하였기 때문에 도신 선사가 법기(法器)로 인정하였다."라고 하며, 또한 "낮에는 스승의 심부름에 자취를 파묻었고, 밤에는 좌선하여 새벽에 이르도록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기를 해를 거듭하였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앞에서 언급한 도신 도량의 노동과 수선을 병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능가사자기〉에 "노동에 힘써 봉사하였기 때문에, 도반들이 먹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구절로부터 도신의 도량은 오히려 풍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5백, 혹은 7백의 대중이 농사를 짓는다면, 자급자족을 넘어 오히려 커다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고 하겠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동산법문에 더욱 많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결국 중국 선종이 출현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국 선종 실질적 창립자 도신 제자
홍인 문하서 중국선종 多 분파 출현
평생 승·속 교화 춘추 74세로 입적

〈역대법보기〉에는 홍인이 도신 선사를 30여 년을 모시고, 법을 인가받아 빙무산(憑茂山), 즉 '동산'에 사찰을 창건하여 이주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전기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들이 많아져서 동산에 사찰을 창건했지만, 홍인이 이주한 시기는 도신의 입적(651) 이후로 추정된다. 실제로 도신의 도량(현 四祖寺)과 동산의 사찰(현 五祖寺)은 걸어서 얼마든지 왕래가 가능할 정도로 가깝다.

〈전법보기〉에는 홍인이 도신의 인가를 받은 이후 그 문하에 귀의하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두 배가 되었으며, "10여 년 동안에 승속을 합하여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천하에 십중팔구가 되었다."라는 조금 과장된 문구가 보이는 것처럼 홍인의 문하에 수많은 이들이 참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인은 이처럼 평생을 승속을 교화하였는데, 〈전법보기〉에는 상원(上元) 2년(675) 8월 8일 "아무 말도 없이 고요히 앉는 채로 춘추 74세로 입적하였다."라고 한다. 홍인의 입적 시기 역시 전기마다 차이가 난다. 〈능가사자기〉에는 함형(咸亨) 5년(674) 2월 16일, 〈조당집〉에는 627년 2월 26일, 〈송고승전〉에는 675년 10월 23일 등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홍인의 이른바 '십대제자'들도 전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상위는 바로 후대에 동산법문의 위상이 선종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계파에서 자파에 유리하게 편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홍인의 선사상은 어떠한가? 홍인의 저술로 〈최상승론(最上乘論)〉(〈修心要論〉이라고도 칭함. 大正藏48 所收)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홍인의 저술이 아니라고 알려져 그다지 중시되지 못하다가 근대 돈황(敦煌)의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홍인의 저술로 판명되어 명확하게 홍인의 선사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상승론〉을 중심으로 홍인의 선사상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최상승론〉에는 "법요(法要)를 알고자 한다면, 수심(守心)이 제일(第一)이다. 이러한 '수심'은 바로 열반(涅槃)의 근본이고, 입도(入道)의 요문(要門)이며, 십이부 경전의 종(宗)이고,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조(祖)이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는 홍인의 법요(法要)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수심'은 어렵지 않게 스승인 도신의 '오문선요(五門禪要)'의 마지막인 '수일불이(守一不移)'로부터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신은 '오문선요'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심체(知心體)'와 '지심용(知心用)'을 시설하여 '심'의 체용(體用)으로부터 출발하고, '상각부정(常覺不停)'과 '상관신공적(常觀身空寂)'의 반야공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일불이'로 전개했지만, 홍인은 곧바로 '수심'으로 축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상승론〉은 바로 이러한 '수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아홉 가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논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상승론〉에서는 이 '수심'을 "수진심(守眞心)" "수본진심(守本眞心)" "수아정심(守我淨心)"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바로 '수본진심'이다. 특히 최종적으로 "천경만론(千經萬論)이 '수본진심'을 넘지 못하며, 그 핵심[要]이다."라고 결론을 이끌었다. 따라서 도신의 선사상적 핵심을 '수일불이'라고 한다면, 홍인의 선사상적 핵심은 바로 '수본진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신이 창립하고, 홍인이 계승한 '동산법문'은 선종의 성립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승속을 합하여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천하에 십중팔구"라는 기사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당시 불교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홍인의 문하에서 중국 선종의 모든 분파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홍인의 제자 가운데 신수(神秀)는 '북종선(北宗禪)'을 창립하였고, 혜능(慧能)은 바로 '남종선(南宗禪)'을 열었다. 그리고 홍인의 제자인 지선(智詵)의 문하에서 '정중종(淨衆宗)'과 '보당종(保唐宗)'이 출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제자인 법지(法持)는 '염불선(念佛禪)'을 제창하였고, 선습(宣什)은 '남산염불문선종(南山念佛門禪宗)'을 창립하였다.

따라서 중국선 가운데 그 이전에 발생한 달마(達摩)-혜가(慧可) 계열의 능가종(楞伽宗)과 우두 법융(牛頭法融)의 '우두종(牛頭宗)'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파가 동산법문의 홍인 문하로부터 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후대에 우두 법융을 도신의 사법제자로 조작하였고, 또한 달마-혜가 계열의 능가종 역시 동산법문과 연계하였다고 하겠다. 실제로 동산법문과 우두종, 능가종은 서로 다른 계열이며, 그 선사상 역시 동일한 틀로 배대할 수 없는 이질적 요소가 다분하다. 그러나 후대에서 그들을 모두 하나의 법계(法系)로 조작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상이 혼재하여 더욱 다양성을 확대하였지만, 이른바 뱀과 용이 공존하는 '용사혼잡(龍蛇混雜)'이라는 부작용 또한 극심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쌍봉산에 선림을 창립한 도신 선사의 업적은 중국불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도신을 계승하여 동산법문을 일으킨 홍인의 업적 또한 충분히 스승 못지않은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창성(創成)도 중요하지만, 수성(守城)은 더욱 중대하다. 중국불교의 역사에서 뛰어난 존숙(尊宿)이 그를 계승할 제자가 없어서 당대로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